<제4강_악에 대한 철학적 고찰>

칸트 철학에서 악의 개념

구연상(숙명여대)

1. 사람의 본성(本性) 문제: 아담 설화에 대한 칸트의 해석

사람은 선을 지향하도록 태어났지만 반드시 선만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선에의 소질(素質, Anlage)'뿐 아니라 '악에로의 자연적 성향(性向, ein natürlicher Hang zum Bösen)'도 갖는다. 사람이 가진 '바탕 성질'은 동물성, 인간성 그리고 인격성 등이 있다. 앞의 두 소질은 자기에 대한 사랑(Selbstliebe)을, 마지막 소질은 도덕법칙을 존경하는 능력을 낳는다. 이 세 가지 모두 사람에게는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하는 근원적인 것이다. 이와 달리 성향은 "쾌락을 향하는 소질"로서 사람마다 끌리는 바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끌림, 즉 경향성(傾向性, Neigung/ 습관적 욕망)은 상대적이고 우연적이다.[1]

사람의 필연적 소질 세 가지는 누구나 그 소질을 잘 써먹어야 하는 것이지만, 성향과 경향성은 잘 조절되어야 한다. 악은 인격적 소질이 충분히 계발되지 못해 감성적 쾌락에 지나치게 이끌리는 나머지 자기 스스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믿는 바를 저버린 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선택하는 무능력이다. 만일 사람이 자신의 세 소질을 잘 조화롭게 유지한다면, 악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비록 우리의 현실에는 수많은 악이 발생하지만, 악은 사람의 본성이나 소질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절제되지 못한 성향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악이 비록 사람의 성향과 관계될지라도, 악에 대한 책임은 그러한 성향이 아닌 불완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 자신에게 놓인다.(종교, 20)

'악에로의 성향'은 사람이 본성상 악을 좋아한다거나 언제나 악만을 선택하려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을 선택하려는 동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일을 피하려는 동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선택이나 갈등 상황에 놓인 사람은 흔히 해야만 하는 일과 이익이 되는 일 사이에서 고민을 한다. 도덕의 문제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일을 피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생겨난다. 선은 자기의 이익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악은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악에로의 성향'은 사람이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근본악'이고, 그런 의미에서 악의 근원(Ursprung)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원이란 최초의 원인을 뜻한다. 첫번째 원인은 대개 직접적 경험으로는 알 수 없고, 보통 그것의 결과 연쇄를 통해 거슬러 추론할 수 있다. 만일 악의 성향이 그리스도교의 원죄처럼 '죄의 유전' 또는 '흠의 전염'을 통해 상속되는 것

---

1 I. Kant,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 1793, S. 15-22. 앞으로는 "종교"로 줄임.

이라면,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나 악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질 필요도 없게 될 뿐 아니라,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속한 뒤에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의 원인을 설명할 길이 없어지고 만다.

칸트는 아담 설화를 유전이나 전염의 눈길로 보는 대신 '죄를 지는 행위'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만일 사람의 악이 원죄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아담의 죄는 원죄와 무관하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아담에게는 야훼의 금기가 주어져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만 했다. 그들이 이 명령을 따라야 한 까닭 또는 동기는 그것이 야훼의 명령이라는 점이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양심과 이성과 판단에 따라 그 명령을 따랐다. 이는 그들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들이 금기(禁忌)를 어긴 까닭은 악한 영의 꾐에 넘어갔거나 스스로 교만(驕慢)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야훼의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법(神法)을 깨뜨린다.(종교, 43-46)

원죄에 대한 칸트적 해석은 사람이 악을 저지르는 까닭이 사람의 본성에 악의 소질이 심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선의 소질', 달리 말해, 신의 명령이나 도덕 법칙과 같은 것을 지키고자 하는 양심이 어떤 꾐에 넘어가거나 약해지거나 그 노릇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임을 말해 준다. 사람은 본디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을 온 마음을 다해 해내려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착한 마음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사람은 온갖 것에 마음이 흔들릴 뿐 아니라 '마땅한 것'을 올바로 아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제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실천적으로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칸트는 사람이 '선하게 살도록' 태어났지만, 그 능력이 불완전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더욱 중시되는 세상살이에 젖어들어 '선한 것'을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악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우리가 선하게 살려 한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심겨진 '선의 소질'을 잘 키워야 하고, '악에로의 성향'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을 올바로 깨달아 그것을 자신의 의무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저질러진 악은,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든, 그것을 저지른 사람의 책임이 된다.

2. 악에 대한 구분: 자연적 악, 도덕적 악, 형이상학적 악

자프란스키는 악의 개념은 단순한 '개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위협적인 것의 이름'이라고 말한다.[2] 우리가 누군가를 "악당(惡黨)"의 이름으로 부를 때 그 이름은 단순한 작명법이나 낱말에 불과한 게 결코 아니다. 그러한 부름은 누군가 자신의 실존적 현실적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 위기에 맞닥뜨렸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절박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자연재해(自然災害)를 당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기력함 앞에 절규(絶叫)한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원망(怨望)이자 닥친 재앙에서 벗어날 길 없음에 대한 한탄(恨歎)의 표현인 것이다. 자연재해가 인재(人災)로

---

2 Rüdiger Safranski, *Das Böse oder das Drama der Freiheit*, München Wien 1997, 곽정연 역, 『악 또는 자유의 드라마』, 문예출판사, 2002, 12 쪽 살핌.

드러날 경우 피해자들의 분노는 직접적 앙갚음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악은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악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나쁜 것(das Schlechte)'으로 이해될 수 있다.[3] 그것은 살아있는 것을 죽음에로 위협하는 것이다. 자연재해, 갖가지 질병, 궁핍, 불행, 신체장애 등은, 그것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저질렀거나 사람이 당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연적 악(malum physicum)"이라 부를 수 있고, 살인, 폭력, 강간, 절도 등은, 그것이 누군가 그 일 자체를 목적으로 했든, 다른 일을 하려던 가운데 불가피하게 발생했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에 의해 행해졌다는 점에서 "도덕적 악(malum morale)"이라 부를 수 있다.
고대 로마의 마니교는 자연적 악이 악한 신에 의해 일으켜진 것으로 믿었다. 마니교는 심지어 도덕적으로 악한 짓을 한 사람의 경우에도 그것이 그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고, 외적인 악한 실체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연적 악을 '악한 신'의 작용으로 보는 대신 신들이 인간에게 내리는 징벌이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악의 관념을 물리치면서 악이 곧 '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즉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사람이 자만에 빠져 신의 절대적 명령을 거슬렀기 때문에 초래된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이 저지르는 '종교적-도덕적 악'과, 그 악에 대한 신의 징벌로 내려지는 '자연적 악'을 모두 '악(malum)'이라 부름으로써 악에 대한 이해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칸트는 악의 갈래가 혼동된 까닭을 라틴말이 악의 개념을 나타낼 낱말들을 갖추고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독일어는 다행히도 이 상이함을 간과치 낳게 하는 표현들을 가지고 있다.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눔(bonum)'이라는 한 낱말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 독일어는 아주 서로 다른 두 개념과 이에 알맞은 서로 다른 표현을 가지고 있다. 곧 '보눔'에 대해서는 선(善, das Gute)과 복(福, das Wohl)이라는, '말룸(malum)'에 대해서는 악(惡, das Böse)과 해악(害惡, das Übel) 또는 화(禍, Weh)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다.[4]

한국말에서 "복(福)"은 "음식과 술을 잘 차리고(豊) 제사(示) 지내 하늘로부터 좋은 보답, 보기를 들어, 칭찬이나 선물을 받는다."는 뜻이다. 복은 '빌어서 받는 것'이다. 복의 반대는 화(禍)인데, 이 낱말은 형성문자로 "신의 문책, 타박" 등을 나타내고, 그 뜻은 신에게 받는 벌이 된다. 유교에서 오복은 "오래 삶(수, 壽), 돈이 많음(부, 富), 몸과 마음이 건강함(강녕, 康寧), 베풀기를 좋아함(유호덕, 攸好德), 아름다운 죽음(고종명, 考終命)"이 꼽히고, 이러한 복이 없어가 잃어버리는 것이 곧 화가 된다.
칸트에 따를 때, 복이나 화는 사람의 쾌와 불쾌, 또는 즐거움과 괴로움의 상태와 관계된다.

---

3 이러한 악에 대해서는, Hermann Häring, *Das Böse in der Welt, Gottes Macht oder Ohnmacht?*, Darmstadt 1999, S. 3-6. 여기서는 이광모, 「악에 관한 형이상학적 고찰」, 재인용.

4 칸트 지음, 백종현 옮김, 『실천이성 비판』, 아카넷, 2003, 143 쪽. 앞으로 "실천"으로 줄임.

쾌는 사람이 욕구하는 것이고, 불쾌는 혐오하는 것을 말한다. 술을 마시는 일은 어떤 사람에게는 유쾌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쾌하다. 이러한 차이는 그들의 감정이나 신체적 반응 또는 기분에 달린 것일 뿐, 도덕적 선악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다. 칸트는 이러한 차이를 다음의 보기로 설명한다.

고통아, 네가 제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나는 네가 무슨 악한 것(malum)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실천, 145 쪽)

칸트는 스토아 학파가 말한 이때의 '악'이 악(惡, das Böse)이 아니라 해(害, das Übel)나 화(禍, Weh)를 뜻한다고 보았다. 신체의 고통은, 그것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자연적인 것이거나 어떤 초월적인 것(신)에 의해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고통이 몸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면, 그것은 도덕과 무관한 것이고, 만일 고통이 신에게서 가해진 것이라면, 그것의 원인이 되는 신 자체가 사람의 이성에 의해 파악될 수 없는 한, 그것 또한 도덕과 무관하다. 즉 고통이 사람의 '도덕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것은 '도덕적 악'이 될 수 없다.[5]
자연적 악과 도덕적 악의 구분은, 여기서 도덕이 사람의 이성에 기초한 것인 한, 자연과 인간의 구분과 같다. '악'은 파괴와 고통을 낳는다. 자연적 악은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의지로써 거부하거나 통제하려 할지라도 사람의 능력을 압도해 가해진다. 사람은 자연의 폭력 앞에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한 어린아이처럼 속수무책일 뿐이다. 자연적 악의 다른 이름은 운명이나 숙명 또는 재앙과 같은 것이다. 이와 달리 도덕적 악은 사람이 원인이 되어 야기되는 악을 말한다. 사람은 자신의 몸이나 말 또는 갖가지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악을 행사할 수 있다. 사람의 악행은 사람이 가진 이성, 의지, 감성, 행동 등의 복합적 작용을 통해 실행된다. 도덕적 악에서 특징적인 점은 그 악이 '누구도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이다.
악은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파괴자는 다른 아닌 피해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거나 환경이다. 악은 이 세계의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만일 이 세계가 완전하다면, 달리 말해,

---

5 그러나 복과 화는, 그것이 비록 전통적 의미의 도덕적 문제와는 거리가 멀지만 사람의 삶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한, 선악의 문제와 직접 관련된다. 만일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신이 사람의 길흉화복을 다스린다면, 사람이 그 다스림을 무시함으로 재앙이 닥쳤을 때 그것은 단순한 '징벌(화)'가 아니라 '악'이 되고, 자연재해가 사람의 환경파괴로 말미암았다면, 그것 또한 단순한 '화'가 아니라 '악'이 된다. 선악의 원인과 결과는 한 사람의 의도적 행위에 국한되어 파악될 수 없다. 하나의 행위는 없다. 모든 행위는 연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사람의 행위는 과학과 기술에 힘입어 그 범위와 영향력(공간적, 시간적)이 날로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 자신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생명에 손을 대는 일과 같은 '흠 있는 일', 탐욕과 같은 '죄'는 '악'과 무관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가능성을 앗아가는 '악'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삶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새로운 '악 개념'이 요구된다.

선이 충만해 있다면, 악은 자리할 곳이 없을 테고, 따라서 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악은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계는 완전하지 않고, 아울러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완전하지 않다. 세계와 인간의 불완전성은 서양철학에서 흔히 말하는 '형이상학적 악(malum metaphysicum)'의 유래가 된다.

라이프니츠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계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가능한 세계 중에서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했다.[6] 그런데 최선의 세계에는 '악'이 없지 않고 있어야 한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이 세계는 완전한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 창조된 세계는 창조주 신과는 다른 것이다. 즉 신이 완전하다면, 피조물은 완전할 수 없다. 지어진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모두 불완전해야 한다. 불완전성은 완전성에 미치지 못함, 달리 말해, 완전성을 결여(缺如, Privation)한 것을 말하다. 결여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다.

지어진 것들은 저마다의 결여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즉 보다 완전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신에게로 다가가야 한다. 지어진 모든 것이 비록 저마다의 완전성을 이루어가려 하지만, 그 실현의 정도는 각기 다르다. 지어진 것은 그것이 완전성을 실현한 만큼의 '선'을 갖는 동시에 그것이 아직 실현하지 못한 만큼, 달리 말해, 결여한 만큼의 '악'도 갖는다. 지어진 모든 세계는 불완전한 것으로서 자체로 '형이상학적 악(malum metaphysicum)'을 갖는다. 악은 '아직 갖추지 못한 좋음'이고, 선은 '이미 갖춘 좋음'인 셈이다. 선과 악은 상대적 개념이 된다. 만일 선이 '보다 적은 악'이라면, 악은 '보다 적은 선'이다. 이러한 이해에 따를 때, 사람의 어떤 행위는, 그가 행할 수 있었던 '보다 좋은 행위들'에 대해서는 악하지만, 그가 행할 수 있었던 '보다 나쁜 행위들'에 비해서는 선하다.

3. 칸트의 악 개념

칸트에 의하면, 선과 악은 사람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조건에서 자유롭게 선택한 행위로써 이루어진다. 행위의 자유가 없는 곳에는 선악도 없다. 선택의 자유는 이성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진다. 이성이 없는 동물들은 그들이 비록 가능한 여러 행동들 가운데 하나를 실행할 수 있을지라도 '자유로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내재된 자연적 메커니즘을 따랐을 뿐이다. 그것은 마치 물길이 들판을 흘러내리는 것이나 구름이 하늘을 흘러가는 방식과 비슷하다. 동물들의 조건반사적 선택은 그것이 이전의 경험이나 본능, 충동 등에 의거

6 G. W. Leibnitz, *Die Theodizee*, Hamburg, 1968, S. 101

한 것일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자연적 필연성에 따른 것이다.[7]
반면 언제나 이성의 원리에 따라 선하다고 여겨지는 것만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도덕 문제가 생겨날 수 없다. 선에 대한 필연적 선택은, 그것이 악을 선택할 수 없는 한, 자연적 메커니즘에 따른 선택과 마찬가지로 도덕과 무관하다. 도덕은 언제나 '자유의 선택'이 주어진 곳에서만 발생한다. 사람은 이성적 능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동물적이기도 하다. 사람은 '이성에 따른 도덕 법칙'과 '감성적 충동의 지배'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감성적 충동과 그에 따른 행위는 '자연적 필연성'에 속하는 것으로서 선악의 개념과 무관하다. 칸트에 따를 때, 도덕적 선악은 심리적 사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보편적 성질을 갖는다. 선악은 누군가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이성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실천, 145 쪽)

우리가 선하다고 일컬어야만 할 것은 모든 이성적 인간의 판단에 있어서 욕구 능력의 대상일 수밖에 없고, 악이란 모든 사람의 눈에 혐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실천, 145 쪽)

만약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즐겨 우롱하고 불안하게 하는 어떤 자가 마침내 날뛰다가 흠씩 두들겨 맞게 된다면, 이것은 물론 해악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은 잘한 짓이라고 찬동을 표할 것이고, 설령 이로부터 그 이상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선하다고 여길 것이다. 아니, 그 해악을 입은 자조차도 그 자신의 이성에서는 그에게 일어난 일이 당연하다고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여기서, 이성이 그의 앞에 불가불 제시하는, 무탈함과 바른 거동 사이의 비례가 정확히 실행되고 있음을 볼 것이니 말이다.(실천, 146 쪽)

위 따옴글을 통해 볼 때, '악'은 모든 사람의 이성적 판단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심지어 악을 저지른 사람 자신도 그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악'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 또 '악'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할 뿐 아니라 꺼려 물리치려 하는 것이다. 악인(惡人)은 그 자신의 행위가 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일 그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는 이성적이지 않거나, 적어도 이성의 능력이 크게 모자라는 사람일 것이고, 따라서 그는 '악'을 행한 것이 아니다. 즉 그는 '악인'이 못 된다.
어떤 자유로운 행위가 선한지 악한지를 결정짓는 문제는 그 행위가 어떤 법칙을 따라 이루어졌느냐에 달렸다. 이때의 행위 법칙은, 자유로운 행위가 오직 이성에 근거한 것인 한, 이

---

7 I. Kant, *Die Metaphysik der Sitten*, 1798. S. 213. 칸트는 동물들의 선택적 행동을 이끄는 의지를 '동물적 선택의지(arbitrium brutum)'라 불렀다. 이 의지는 감성적 충동에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감각적 충동이나 자극에 반응하는 것일 뿐이다. '자유로운 선택의지(arbitrium liberum)'는 이러한 감성적 경향성을 넘어서 무엇인가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즉 '이성에 근거한 의지'를 말한다. 이성이 없는 동물들의 행동은, 거기에 자유의지가 없는 한, 선할 수도, 그렇다고 악할 수도 없다. 즉 선악과 무관하다.

성의 법칙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한 이성의 법칙을 알고 있고, 그 법칙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할 자유를 갖고 있다. 이는 곧 우리가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의 자유는 이성의 법칙을 따르거나 그것을 거스르거나 하는 데 놓일 뿐이다. 만일 사람이 감성의 법칙을 따른다면, 그는, 그 법칙이 '자연적 필연성'에 속하는 한, 자유로웠던 게 아니게 된다.

그런데 칸트가 제시한 도덕[에서의 이성] 법칙은 범주적 특성을 갖는다. 범주(範疇)는 사물을 서로 같고 다름에 따라 갈라 묶을 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이 되는 것을 말한다. 양(量)의 범주는 특정 단위로써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질(質)의 범주는 정도의 차이로써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자유로운 행위가 도덕성을 갖추려면, 그것은 '도덕 법칙'에 의해 포괄되고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도덕이 칸트의 도덕철학에서처럼 자연이나 신적 영역을 배제한 채 오직 '이성적 생명체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행위'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도덕 법칙은 그러한 행위를 범주적으로 규정해 주면 된다.

하지만 도덕 법칙은 자연 법칙과 달리 사람의 모든 행위를 필연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 법칙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그 법칙에 복종할 때만 법칙이 된다. 법칙은 보편성과 필연성을 갖는 규칙이다. 도덕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어디에서나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도덕 법칙은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떠맡아야만 하는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된다. 사람이 도덕 법칙을 스스로 그 자신에게 의무로서 부과하는 것을 자율(自律)이라 한다면, 사람은 자유 의지로써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할 수 있다.

사람이 자신이 깨달은 의무를 실천할 때 그는 선하다. 하지만 사람은 수많은 욕구들과 욕망들 그리고 자연적 경향성들을 갖는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것들은 자연적 법칙처럼 특정한 원인이 주어지면 필연적으로 특정한 행동들을 불러일으킨다. 사람은 배고프면 자동적으로(본능적) 먹고자 하는 충동을 느낀다. 만일 특정한 충동이나 감정이 자신이 깨달은 의무와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갈등을 겪는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만일 우리가 의무를 저버린다면 우리는 '악'의 유혹에 넘어간 셈이다.

우리의 행위 준칙은 언제든 도덕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바로 악이 성립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다.[8] 하지만 도덕 법칙에서의 벗어남 자체가 곧 악은 아니다. '악'은 그 벗어남의 목적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생겨난다. 즉 사람이 자신의 행위 기준을 의도적으로 도덕 법칙에서 자기 이익으로 바꿀 때 악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칸트의 '악 개념'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그가 제시한 '도덕 법칙'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1)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

---

8 I. Kant,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순수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Hrsg. v. Wihelm Weischedel, Darmstadt 1983, Ba. 7, S. 670. 여기서는 이광모, 「악에 관한 형이상학적 고찰」, 재인용.

게 행위하라.(실천, 86 쪽)[9]

(2)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서 사용치 않도록 행위하라.(정초, 148 쪽)

악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의무), 또는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에 따를 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알고도, 그 일을 온 마음을 다해 다하는 대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악'은 어떤 행위에 대한 선택이나 그 선택한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 때문에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법칙과 목적 때문에 주어진다. 보기를 들어, 도둑질이 악한 까닭은 도둑놈이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했기 때문도 아니고, 타인에게 어떤 정신적 충격을 주었기 때문도 아니라, 도둑이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따를 때 '악하다'고 여겨지는, 달리 말해, '이성의 법칙에 따라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 깨뜨렸기 때문이다.

4. 칸트의 악 개념을 통한 사례 분석

칸트는 신에 의해 창조되어 있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있는 것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심지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 질병조차도 악한 것은 아니다. 또 칸트는 악이 인간의 유한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연물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악은 사람의 선택에 의해 생겨난다. 사람이 스스로의 이성에 따라 마땅히 해야만 하는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의무감으로 해낼 때 그는 선하다. 반면 사람이 자신의 의무(義務)를 깨닫고도 그것을 저버린 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것에 거스르는 짓을 할 때 그는 악하다.
사람은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선택한 바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때 사람의 선택은 옳지 않은 욕망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만일 사람이 언제나 본능적 충동에 따라 행동하거나 감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그저 욕구 충족만 일삼는다면, 그는 동물과 다를 바 없고, 본능과 감성의 노예로서 결코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그는 이러한 자연적 필연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성적 판단 능력을 통해 충동과 감성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것들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다.
이성(理性)은 감각을 통해 주어진 다양한 것들을 개념적으로 종합해 참인 앎을 깨닫는 능력일 뿐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도덕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인지를 깨닫는 능력이기도 하다. 앞엣것은 '순수한 이성'이고, 뒤엣것은 '실천적 이성'이다. 사

9 "너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칸트 지음, 백종현 옮김, 『윤리형이상학 정초』, 아카넷, 2010, 132 쪽 살핌. 앞으로 "정초"로 줄임.

람은 분명 자유가 주어져 있다. 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그 선택을 실천할 수 있다. 사람이 가진 이러한 선택과 실천에의 의지를 '자유 의지'라 한다. 의지(意志)가 자신이 선택한 바를 이루려 하는 마음을 뜻하고, 자유가 자연적 필연성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서 시작되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데 있는 한, 사람의 '자유 의지'는 본능이나 감성이 아닌 이성에 의해서만 가능한 셈이다.
자유 의지는 사람이 제멋대로 행동하려는 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성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기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올바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말한다. 하지만 사람이 자유 의지를 실천하려면, 그는 충동과 감정에 이끌리려는 자신의 마음을 잘 억눌러 이성의 가르침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이성은 우리에게 행위의 법칙을 깨닫게 해 주지만, 우리를 그 법칙에 따르도록 강제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의 몫이다. 존경심은 누군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서 자만을 버릴 때만 가능하다.
칸트의 믿음에 따르자면, 우리는 만일 우리가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이성적으로 숙고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도덕적 법칙'을 깨달을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자연 현상들을 이성적으로 숙고할 때 자연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도덕 법칙은 이성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의 보기들에 대해서도 선악을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보기) 어르신께 자리 양보

붐비는 전철에 탄 한 청년이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한 것이 '도덕적 선'이 되려면 그는 자리에 계속 앉아 있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겼어야 했고, 그 양보의 목적이 주위 사람들의 칭찬과 같은 어떤 보상을 받고자 하는 데 있지 말아야 하며, 그가 오직 '청년은 마땅히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라는 이성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어야 한다.[10]

보기) 위증 금지

군주가 당신을 곧장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어떤 정직한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한 위증을 당신에게 요구한다면, 당신은 위증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가? 당신은 아마도 '위증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는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믿을 것이다.(실천, 85-86 쪽) 만일 당신이 이러한 의무를 깨닫고도 스스로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위증을 했다면 당신은 악하다!

보기) 노름에서 속임수로 돈 따기

노름에서 돈을 잃은 사람은 자신이 영리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노름

10 백종현, 「『실천이성비판』 연구」, 『실천이성비판』(칸트 지음, 백종현 옮김, 아카넷), 445-448 쪽 살핌.

에서 속임수로 돈을 땄다 치자. 이때 만일 그가 자신의 행위를 윤리 법칙에 비추어 본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경멸할 것이다. 비록 그가 돈을 벌어 행복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는 도덕적으로는 비열한 자가 된다.(실천, 101 쪽)

<의무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별>

(1) 자살하지 않는 일(정초, 133-134 쪽)
(2) 돈을 갚을 수 없을 줄 알면서 돈을 빌리는 일(정초, 134-135)/ 거짓 약속(정초, 94-96)
(3) 쾌락에 몰두하기(정초, 135-136)
(4) 다른 사람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기(정초, 136-137)